

# ‘학구파’ 와인 애호가 위한 ‘전문가의 자격’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55〉 와인 자격증

“한국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 령계 2~3시간이 지나서는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열리는 와인 행사를 참석해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두들 뭔가 열심히 먹고, 전문가나 수입사 관계자가 아니라도 와이너리 담당자에게 와서 적극적으로 묻죠. 질문 수준도 높아요. 특정 빈티지와 비교하거나 테루아에 대해 논해요. 일본은 유행에 민감하죠. 중국은 와이너리 명성이나 브랜드에 집착해요. 한국은 학구적인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한 와인 행사에 참석한 해외 와이너리 관계자의 말이다. 그리고 보니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았다. 삼삼오오 친구들과 끼리 와셔도 진지하게 와인을 테이스팅하고, 의견을 나눈다. 현장에서 시음노트를 작성하는 이들도 많다.

하긴 동네 뒷산을 올라가더라도 에



지난해 새로 탄생한 14명의 마스터 오브 와인.

/와인 협회 (Institute of Masters of Wine)

베레스트 등반 장비와 옷을 갖추는 우리다. 와인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기지도 남의 말을 할 처지는 안된다. 그저 술이 좋아 마시다 보니 소주와 맥주도 브랜드에 따라 유별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와인에 기웃거렸고, 바로 소믈리에 자격 코스를 등록했으니 말이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학구열 넘치는 와인애호가를 위해 와인자격증을 살펴볼까 한다.

먼저 국내에서 와인 소믈리에에 국가인증 자격은 아직 없다. 민간 협회로 한국 소믈리에협회와 한국 국제 소믈리에협회, 한국 와인교육협회 등이 와

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비롯해 블라인드 테이스팅, 와인 서비스 실습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같은 시험을 통과해도 와인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소믈리가 아니라 와인어드바이저로 불린다.

국제 자격증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도 많다.

가장 알려진 것이 WSET다. 와인과 스피릿 교육인증(Wine & Spirits Education Trust)의 약자로 영국에서 시작됐다. 자격 등급에 따라 와인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생업이 아니라 취미 수준으로 와인

을 공부한다면 WSET 레벨 1, 2가 적당하다. 레벨 1은 와인 입문 과정으로 짧으며, 레벨 2는 와인 포도 품종이나 양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수준까지 들어간다.

WSET 레벨 3부터는 어디가서 자격증을 내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와인을 시음하면 감별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합격률도 10% 안팎으로 낮다. 디플로마로 불리는 레벨 4는 아직 국내에서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며, 자격을 딸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절정은 와인 마스터(Master of Wine)다. 와인 마스터들은 와인 심사, 테이스팅 행사, 평론 등을 통해 와인업계에서 권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전 세계 30개국, 389명의 와인 마스터가 전무다. 지난 2008년 동양인 최초의 와인 마스터로 한국계인 지니 조 리가 이름을 날렸지만 한국인으로 와인 마스터 타이틀을 거머쥔 이는 아직 없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단 14명만이 새로운 와인 마스터로 이름을 올렸다. 와인의 본거지인 프랑스에서도 한 명만 최종 관문을 통과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인이 새로 와인 마스터 타이틀을 가져갔다. /smahn1@metroseoul.co.kr

## 맥도날드 ‘맥카페 인기커피 4종 디카페인으로 만나요’

맥도날드는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맥카페(McCafe)’ 메뉴에 디카페인 커피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퀵서비스 레스토랑 업계 최초다.

맥도날드는 기존 커피 메뉴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 커피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디카페인 커피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등 고객들이 주로 찾는 대표 메뉴 4종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미디엄 사이즈 기준 1000~2000원대다.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이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헤비 드링커, 늦은 오후나 심야에 커피를 즐기고 싶은 고객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안심 맞춤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선보인 맥카페는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고품질 커피를 1000~2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커피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 전자랜드, ‘브랜드 대전’ 삼성·LG 인기상품 총출동

전자랜드는 2020년을 맞아 ‘삼성전자·LG전자와 함께하는 새해 첫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은 2020년 새해 첫 이벤트로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1일간 삼성전자 제품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LG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랜드는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 기간에 용산본점, 반포점, 중동점, 비산점, 일산점, 주안점, 대전본점, 상무점, 수송점, 중리점, 쌍용점, 상남점, 삼산점, 수성점, 죽전점, 진주성점, 화명점, 운정점, 길동점, 진접점, 세종점, 인후점, 익산점, 오광장점, 도동점, 합포점에서 행사 제품을 5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명을 추첨해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G.C 골프여행 3박 5일권을 제공한다. 해당 골프여행권은 1매당 동반 1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지웰페어 복지카드 고객이 행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LG전자 제품을 2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전국 놀이동산 및 스포츠 2인 자유이용권을 특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윤종일 전자랜드 관측그룹장은 “이번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대전은 고객에게 인기를 얻었던 제품만을 선정해 준비했다”며 “새해를 맞아 가전제품을 구매하고자 했던 고객들에게 좋은 구매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랜드는 오는 31일까지 경자년 환위의 해를 맞아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쥐띠 고객에게 파riba게트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생일이 1월인 신규 멤버십 고객 중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교환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박민용 기자

# ‘펫과 여행하려면?’... 펫택시·투어·시터 뜬다

## 🐾 펫코노미 시대 🐾

### 📌 반려동물 일자리

‘반려(伴侶)’라는 단어는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동물을 키운다는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커져 반려동물이란 단어가 친숙하게 쓰이고 있다.

2018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 급증과 빠른 고령화 등 현대사회 속에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여행가이드,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터, 반려동물의 편안 이동을 돕는 펫택시 등 관련 일자리도 빠르게 늘고 있다.

### ◆반려동물과 이동에도 걱정 無 ‘펫택시’

차가 없는 반려인의 경우 반려견과 함께 갑자기 이동을 하려면 난감해진다. 일반 택시의 경우 반려동물과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동장을 들고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위급상황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펫택시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펫을 위한 배변패드, 물티슈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펫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클래식 음악, 아로마 제품까지 마련하는 등 편리함을 선사한다.

펫 택시 요금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요금 7000~8000원에서 시작해 미터당 요금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의

펫산업 폭풍성장... 올해 3.3兆 규모 정부 관련 일자리 4.1만개 창출 목표

“펫택시 비싸도 마음 편해” 수요 증가 반려견 동반 여행상품·가이드 ‘주목’



일반 택시 기본요금(3800원)의 두 배 정도 가격이지만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나 모(33)씨는 “급하게 종합병원에 가야 할 때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택시가 많아서 불편했는데, 펫택시는 예약만 하면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한 번 타면 기본 1만원 이상은 나오는데 반려동물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다. 펫 택시를 종종 이용하는 김 모(28)씨는 “이용 가능한 택시 수가 적고, 개인 운영으로 네트워킹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 하루 전이나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과 함께 해동이 ‘펫투어’

펫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만만찮다. 이동 수단부터 이동장, 동물용품, 숙소까지 생각하면 자칫 여행이 버거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어렵다. 반려동물과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 펫투어는 이런 부분을 공략했다. 숙박부터 차량 이용까지 반려동물을 배려한 환경을 갖췄다. 또한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사회성도 키워줄 수 있다.

와그트래블은 반려견과 함께 열차를 타고 신년 해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해동이 KTX 열차 여행 투어 상품 판매를 최근 진행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강릉역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강릉 강문해변에서 반려견과 함께 2020년 새해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다.

전문 펫 가이드가 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반려견 전용 좌석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해돋이 감상 외에도 반려견 동반 커피 타임 등 반려견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 ◆언제 어디서나 돌본다... ‘펫시터’

반려견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도 걱정 없다. 원하는 날과 시간만 정하면 집에 방문해 펫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있기 때문이다. 어질러진 집안 청소와 배변 정리는 물론 공원 산책, 실내 놀이를 함께 하며 반려동물을 돌봐준다. 펫시터의 집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모든 방문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간 GPS 기록을 통해 산책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업체마다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펫시터와 이용자 양측의 신원 조회도 이뤄진다.

해외에서는 펫시터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아 업무량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받는다. 국내에서도 펫시터 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일자리도 늘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까지 4만1000개의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미래도 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8994억원에 그쳤던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올해 3조3753억원에서 2027년 6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